

데이터로 소통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

-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미래 구상 -

김 현¹⁾

1. 내가 생각하는 유교문화 아카이브

몇 해 전, 안동 지역에 건립되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전시 기획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현하고, 그것이 전시 기획과 어떻게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때, 이 주제에 관해 고민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유교문화 아카이브 아닌가?”

서울의 종묘와 성균관, 전국에 산재한 227 곳의 향교²⁾와 650여 곳의 서원³⁾, 이곳에 제향된 2,000여 명의 선비들, 전국의 향리에 대대로 세거하며 그곳의 유교 예속을 이끌어 간 지방 사대부들의 전통 가옥, 그곳에서 이루진 유교적 교화의 성취를 대변하는, ‘효자’, ‘충신’, ‘열녀’의 정려들, 풍광이 아름다운 곳곳에서 선비의 사색과 풍류를 즐겼던 누정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가치를 후세에 알리고자 돌과 목판에 문자를 새겨서 남길 수많은 기록물들 이 넓은 세계에서 어느 일부분을 선택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곳이든 그 세계의 현장에 직접 다가가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현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역사 기록은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유교 국가였음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인들 가운데 유교를 자신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사회적 성취의 기준이 달라진 상황에서 유교는 ‘최고의 가르침’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외형적으로 유교를 신앙하는 모습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가정생활과 학교교육의 곳곳에서 이들이 전통적인 규범에 영향 받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가족, 친지, 사제, 직장 상사·동료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의와 염치는 다분히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제례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 교사의 자세, 심지어는 정치인의 인격까지도 유교적 인간관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교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로서보다는 문화적 전통이자 국민들 대다수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삶의 규범으로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⁴⁾

1)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소장 /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회장

2)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등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교의 수

3) 한국서원연합회의 전국서원목록 등재 서원의 수 http://seowonstay.com/bbs/board.php?bo_table=slist

4) 김현, 「한국의 유교」, 『100가지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http://dh.aks.ac.kr/Korea100/wiki/index.php/한국의_유교

우리가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잊힌 역사의 조각을 흥밋거리로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다. 유교문화박물관이나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는 ‘유교적 전통’의 본질과 변화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의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이미 죽은 것의 박제와 다름없다면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 이야기를 전하는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브의 콘텐츠에 관해 발표자가 주목하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고립’과 ‘연결’이다. 한 편의 문서, 한 장의 사진, 한 채의 건물, 한 사람의 인물이 각각 고립된 정보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과거 사실의 조각, 조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정보가 주어져서 그 개개의 사실들이 ‘이야기’로 엮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야기와도 유사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한 끝에서, (그것이 장소건, 인물이건, 유물이건, 삶의 동질성에 대한 공감이건....) 나의 현재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면 그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얻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림 1] 의성김씨 학봉종택의 한글 서간과 관련 지식 데이터

‘살아있는 이야기’를 추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은 실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온라인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종래의 정보화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후자는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Archival Materials)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박물관의 유물 한 점이나 기록관의 문서 한 장은 그것이 독립적, 자기완결적으로 존재가치

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회 현상, 인물의 삶과의 관련 속에서, 또 다른 유물들과 함께 어울려 어떤 집합적 의미나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유물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고, 유물이나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지식도 동원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나의 아카이브 소장물의 디지털 카탈로그에 머물게 되면,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발견할 이야기는 매우 협소하고 무미건조할 것이다.

실제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전시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큐레이터가 특정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에 관한 풍부한 볼거리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경우, 자기 박물관의 소장품만 가지고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의 대여전시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그 유물이 대변하는 역사나 문화의 맥락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지도, 사진을 보여 주는 안내판을 제작한다. 사실상 박물관의 관람자들은 스스로 박물관에 유물을 보러 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이 접하는 것은 큐레이터들이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엮어낸 ‘이야기’이고, 유물들은 그 ‘이야기’의 증거로서 기억되는 것이다. 소장품 위주의 상설전시라고 하더라도, 모든 전시는 큐레이션의 결과이고 그 큐레이션은 소장 유물뿐 아니라고, 그 유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동원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큐레이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란, 말하자면, ‘유물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큐레이션의 아카이브’를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디지털 인문학계에서 논의되는 바의 ‘현대 인문학의 관행에 대한 반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아카이브와 대학의 연구실을 둘로 나누는 과오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아카이브는 해석을 유보한 채, 원천 자료를 그대로 정리.보존하여 제공하는, ‘연구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부여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학술 연구’의 행위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해석되지 않은 원천 자료의 디지털 사본’의 형태에 고집스럽게 머물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문제는 아카이브 자료는 비록 이러한 고전적 형태로나마,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이용자 접근성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 아카이브에서 배제된 맥락 이해와 해석의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쉽게 환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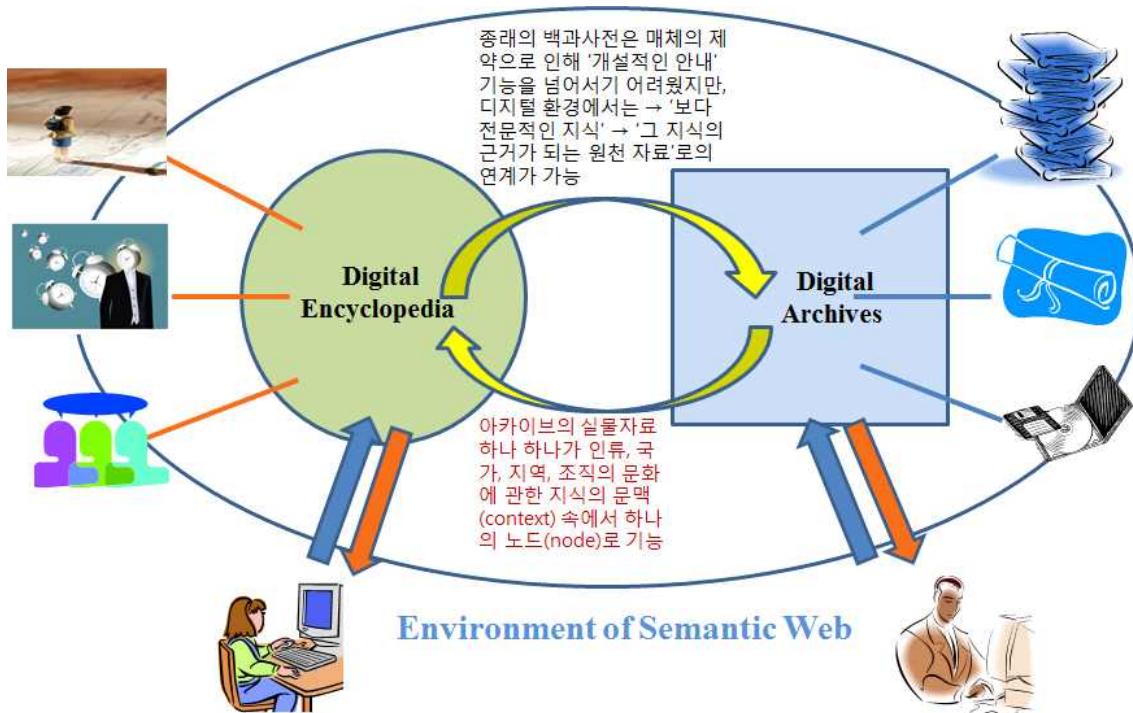
3.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Encyves)는 인문지식의 ‘원천 자료’이자 그 지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 자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지식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대학의 연구실과 박물관, 도서관이 각각 별개의 독립적 기구인 현실 세계에서는 그 소속원들이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런데 아카이브의 자료도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고, 대학 연구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밝혀낸 결과도 똑같이 인터넷 상에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는데, 이 양쪽을 연결해 줄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계속 당연시할 일이 아니다.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와 아카이브의 기록관리자, 박물관의 큐레이터의 역할과 활동 공간이

구분되었던 것은 그들의 일이 디지털이 아닌 물리적 아날로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있어온 현상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그 모든 일의 활동 무대이자 산출물의 유통 공간이 된 세계에서는 인문학 연구실과 아카이브가 별개로 분리되어야 할 영역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인문학 연구실에서는 인문 지식을 탐구할 때,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바로 참조할 수 있고, 아카이브 쪽에서는 실물 자료 하나 하나에 대해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인문학 지식과의 연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을 실현하는 융합연구가 디지털 큐레이션이고, 그러한 융합연구의 현장이자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체계의 중심이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그림 2]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Encyves): 디지털 백과사전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융합 모델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어느 한 곳의 박물관이나 기록관을 그런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백과사전적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개자로 삼아 수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들이 의미적 관계를 쫓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 네트워크의 연장은 아주 전문적인 학술 지식에 도달하기도 하고, 매우 대중적인 오락거리 상식과 접촉할 수도 있다.⁵⁾

5) '한국문화 앤사이브(Encyves of Korean Culture)'는 아카이브의 자료와 백과사전적 지식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추구한 융합 콘텐츠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문화 유산 중 '한글고문헌', '궁중기록화', '민족기록화', '불교 사찰의 승탑 비문', '옛 인물의 초상화'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록물과 관련 지식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수준의 한국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콘텐츠는 2,500여 항목 기사를 포함하는데, 이 기사 속의 문맥 요소(인물, 장소, 사건, 기록물, 물품, 개념 등 4,000여 개의 키워드)는 다른 기사 및 키워드와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데이터(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8,000여 개의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는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되어 연관 지식의 문맥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문지식 빅데이터(Big Data) 네트워크를

4. 데이터로 소통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이면서 동시에 백과사전이기도 하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구상의 중심 철학은 이것이 어느 한 연구소나 박물관, 아카이브의 독립적 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의 협업, 그리고 그보다 더 개방된 세계에서 이루어질 이용자 참여로 계속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확장의 외연은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로 넓혀질 것이다. 유교 문화 아카이브는 당연히 전통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신세계를 공유했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유교문화 자원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계성과 동질성, 특징과 차별성을 탐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아래에 보이는 예시는 대학에서 한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구상한 고문 지식 아카이브 콘텐츠의 일부로, 중국 북송 범중엄(范仲淹)의 문장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데이터화 한 것이다. 악양루기의 텍스트, 이글의 작가 범중엄의 초상, 글의 소재가 된 악양루의 실제 모습, 남송 시대의 악양루를 묘사한 회화 작품, 악양루에 오른 심회를 읊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그 시를 조선시대의 한국어로 번역한 언해, 조선시대에 “악양루(岳陽樓)”의 이름을 빌어온 한국 함안 남강변의 정자, 유교 지식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악양루기의 명구 “선우후락(先憂後樂)”에서 이름을 딴 일본 무사의 정원 ‘고이시카와 고라쿠엔(小石川後樂園)’과 ‘오카야마 코라쿠엔(岡山後樂園)’, 그 모든 공간의 지리적 위치 등.....



[그림 3] 「악양루기(岳陽樓記)」와 관련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

범중엄의 문장이나 두보의 시는 한문화권의 동아시아 제국에서 널리 읽힌 글이지만, 그 글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그 응용이 어떠한 자취를 남겼는지에까지 관심을 갖

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만드는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데이터’로 소통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하나의 개념이, 한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특별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인간들의 삶이 컴퓨터에 의존함으로써 얻게 된 방대한 데이터,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자취’이다. 빅 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개체’와 그 개체들 사이의 ‘관계’이다. 예전에는 인간들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관계(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 또 인간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등)를 일일이 포착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에 의존함으로써 그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빅 데이터’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데이터’의 획득이 용이해졌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해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피상적인 사실의一面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의 역할이 데이터의 풍요 속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빅 데이터의 중심에 인간과 인간들의 삶이 있는 한, 그들의 삶과 엮여 있는 수만 갈래의 문학적 문맥을 도외시 한 해석은 의미와 효용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⁶⁾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유교문화 아카이브가 옛 기록의 맹목적 집성에 머물지 않고, 기계적인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 문맥 데이터로 엮이게 되면, 이것은 현대의 빅데이터와 어울려 우리의 현재를 유교에 뿌리를 둔 전통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로부터 새로운 응용가치를 창출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는 시간적 소통뿐 아니라 공간적 소통도 자유롭게 한다. 디지털 원어민으로 살아갈 우리의 차세대들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전역의 과거와 현재를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며, 전통적인 유교문화국이 공유할 새로운 미래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6) 김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전통문화』 42호, 전통문화연구회, 2017. 5.